



2020년 12월 6일

대림 제2주일 (나해)

제2121호



St. John the Baptist, El Greco,
Fine Arts Museums of San Francisco.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마 3:3)

■ 미사전례

- 제 1독서: 이사 40,1-5.9-11
-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제 2독서: 2베드 3,8-14
- 복음 환호송: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복음: 마르 1,1-8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답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길로 나아가리시라.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17 - 계시에 대해서...(2)

편식은 건강을 해친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만 뽑아서 해석하는 편식은 영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바실리우스, 베네딕도 등 교회의 영성 스승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과부가 전 재산을 바쳤다는 성경 구절을 예로 들며, 신자들에게 전 재산 헌납을 강요해선 곤란하다. 성경 편식의 대표적 사례다. 실제로 성경은 죽음, 구원 등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구절을 단편적으로 인용할 경우,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사이비 종교가 생겨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예수님께서 40일 단식기도를 하셨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가정주부들이 가정을 버리고 산에 가서 40일 동안 단식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내 식대로'해석하는 사례는 이 밖에도 수없이 많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일어났던 일이다. 성경은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맞게, 당신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늘날 초대교회 당시의 기적을 바라는 이들이 많은데, 실상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느님은 오늘날에도 치유의 기적을 수없이 베푸신다. 어디를 통해서? 바로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다. 의료기술의 발전 자체가 하느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적 선물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읽을 때 개인 관심사 위주로 읽어선 곤란하다.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읽고 그 뜻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다 보면 하느님은 나도 모르게 당신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따라서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자신의 해석을 강조하거나 사적 관심사에 집중하다 보면 풍요로움을 놓칠 수 있다.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총을 주신다. 그런데 만약 지도자가 개인 방식으로 성경 해석을 이끌다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또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 대한 지지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 읽혀질 수도 있다. 어떤 이는 예전대 현대 철학이나 현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읽기는 적절한 때에는 유익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 복음서의 철학적, 사회적 의미들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혹은 배타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의 영성생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사회정의를 강조하면서 성경 특정 부분을 선택해 인용한다면 또 다른 성경의 풍요로운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다. 교의적 주석학적 방법과 영성적 방법이 그것이다. 전자는 학문적 이론적 접근이고 후자는 영적 접근이다. 오늘날 모든 성경 교육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마차는 두 바퀴로 달린다. 성경도 이 두 바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영성적 방법에 지나치게 치우쳐 체험적이고 감성적인 부분만 집중한다면 이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학문적 접근에만 매달리면 풍요로운 보화를 발견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학문적 접근에 소홀해선 성경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 또 영성적 차원의 성찰이 없으면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된다. 우선 '공부'가 중요하다. 고등학생이 공부가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도 공부를 게을리하면 더 높은 사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물론 깊은 차원의 주석학 등을 모두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교리적 차원의 지식은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 예비신자 교리 한 번 받은 것으로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성경 공부를 접는다.

성경 보물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지름길은 우선 교리적 차원의 지식만이라도 습득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이어지는 영적 내적 단계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성경이 왜 씌어졌을까, 하느님의 어떤 섭리가 성경에 담겨 있을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적도록 섭리하신 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담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 <가톨릭신문 제2766호 (2011년 10월 16일) -정영식 신부 (수원교구 군자본당 주임)>

주임신부 : 양태현(그레고리오) ☎323-828-7482 / 보좌신부 : 정재덕(안토니오) ☎323-493-2727 / 종신부제 : 예영해(프란치스코) ☎213-249-2127

성삼 소식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개강 일시: 12월 6일(일) 오전 9:00, 성당
- 성삼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될 예비자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복음화부장 임상도(스테파노) ☎213-361-4907

☪ LA교구 2차 헌금(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 다음 주일(12월 13일)에는 LA교구 “은퇴 수도자”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성탄 판공 성사

- 기간: 12월 8일(화) ~ 23일(수) 매 미사 30분전.
- 장소: 사제 집무실(2층) <※성사표는 사무실 앞>

☪ YouTube 2020 대림피정

- 제1강의
 - *날짜: 12월 7일(월)부터 시청 가능함.
 - *주제: 묵주기도로 맛 들이는 영성생활.
 - *강사: 박 비오신부님(정하상 바오로성당 주임신부)
- 제2강의
 - *날짜: 12월 14일(월)부터 시청 가능함.
 - *주제: 1) 기다리는 마음 행복하여라.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2) 사람 되신 말씀 “참 빛이 세상에 왔다”.
 - *강사: 신용문(야고보)신부님(테메쿨라 꽃동네)
- 시청방법: YouTube 사이트에서 <KCBCUS검색>
- *주관: 남가주 사제협의회 *후원: 미주 가톨릭 방송국

☪ 주일학교 등록

- 수업방법: 온라인 수업(Zoom)
- 대상: 1학년-12학년
- 등록: 오전 10:00 영어미사 후. • 등록비: 없음.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반별 온라인 수업시간:

학년	요일	시간
고등부	매주일	오후 1:00
중등부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2:00
4-5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00
3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30
1-2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2:00

- 문의: 이경란(젬마) ☎213-273-6797

☪ 성당 비품, 소모품 관리

-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당의 모든 비품 및 소모품을 정리하여 관리하려고 합니다. 성당 물건이나 부속용품을 빌려 가신 분들은 반납해주시거나, 사무실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성당 사무실 ☎323-221-8874

☪ 장례 미사 안내

- 故이강호(후벨트) 향년 81세, 11월 29일 선종.
- 장례미사: 12월 11일(금) 오전 10:00
- 유가족: 미망인 이숙자(데레사) 2구역 3반.

우리들의 정성 (2020. 11. 29 현재)

교 무 금	4,425.00	교무금(20명) 강수환, 구강호, 김봉소, 김신아, 김은민, 김진정, 김천애, 독고근, 백부기, 안진환, 오세창, 이진석, 이태중, 최순범, 최재각, 최진경, 최현수, 최홍준, 태윤주, 한상윤, 감사헌금(2명) 김천희, 태윤주, 성소후원금(9명)
주일헌금	1,243.00	
감사헌금	150.00	
성소후원금	12.00	

본당살림

『대림절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

대림시기는 바로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극기, 회개(Metanoia)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며 “당신은 하늘을 뚫고 내리 오십시오”하고 기도하고 있다.

대림절 기간동안 교회는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기도, 단식, 자선의 행위를 적극 권면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공식적으로 이 행위를 공동으로 실천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우들이 하느님 백성으로서 연대 의식 속에 몸과 마음을 정리하여 주님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성탄축일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실천>

첫째 마음의 순결 : 성모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태어나시고 동정녀로서 주님을 맞이하신 것을 본받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둘째 겸손 : 마리아 막달레나의 겸손과 통회와 뉘우침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자비와 전능에 대해 영광을 드리고 겸손 되어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셋째 신뢰심 : 우리가 약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의탁하며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뢰심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야 한다.

넷째 표현 :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꾸준히 기도와 희생을 하며 기쁨과 희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페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페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에육)	백양·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7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배지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웁)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곳은 뚫어드리고 뚫린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 E. 21가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아고보) 생명/은퇴연금/로딩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